

담당자	세화미술관 석지훈 사원(010-9905-4059) 대외협력실 김정훈 부장(010-5411-6277)	배포일	2023.10.16.
-----	--	-----	-------------

태광그룹 세화미술관, 《귀맞춤(Tuning the Ears)》展 개최

- 태광그룹 세화미술관, 인본주의적 시각을 재조명하고 AI와 차별화된 '인간다움'의 요소들을 탐색하는 논알고리즘 챌린지(Non-Algorithm Challenge) 3부 릴레이 전시 진행
- 첫 전시, 《귀맞춤》은 인간 사고의 근간인 '감각'에 주목, 그 중에서도 '청각'을 다룬 작품 선보여
- 국내 유망 작가 3인(배인숙, 원우리, 전형산)의 사운드아트 신작 5점을 포함한 7점 출품

태광그룹 세화미술관(관장 서혜옥)은 10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흥국생명이 후원하는 논알고리즘 챌린지의 첫 번째 전시 《귀맞춤》을 개최한다. 세화미술관은 고도화된 인공지능과의 공존 시대에 AI와 차별화된 '인간다움'을 탐색하는 '논알고리즘 챌린지'를 기획했다. 인간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의 영역이 점차 확대될수록 인간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논알고리즘 챌린지는 이러한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과 비인간의 존재와 관계 속에서 인간다움에 대해 다각적으로 생각해보는 3부작 기획전시 프로젝트이다. 3개의 전시로 기획되었으며, 정형화되지 않은 인간의 사고 체계에 주목하여 예술 작품을 통해 인간성(Humanism)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전시인 《귀맞춤》은 외부 데이터를 처리하는 인간의 독특한 방식인 '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빠르게 사라지는 소리를 1,000분의 1초 만에 계산하여 외부 자극을 감각으로 변환하는 '청각'에 주목한다. 듣는다는 것은 여러 소리 속에서 내가 원하는 신호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우리의 뇌는 자신이 감각한 것을 자율적으로 해석하여 의미를 만들어낸다. 즉, 감각은 외부의 데이터를 의식과 연결하여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배인숙, 원우리, 전형산 작가는 인간의 주체적인 감각 과정인 '듣기'를 주제로 제작한 작품을 세화미술관 제 1, 2 전시장에서 선보인다. 전시는 시각중심주의에서 체감하기 어려웠던 인간의 '청각'을 증폭시킴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소리를 감각하는지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존재 자체를 감각하는 것을 시도한다.

《귀맞춤》은 광화문 흥국생명빌딩에 위치한 세화미술관에서 유료로 진행되며,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참여 작가 3인의 아티스트 토크와 워크샵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시 입장권은 온라인 예매처(인터파크, 네이버)와 세화미술관 홈페이지(www.sehwamuseum.org) 및 현장 매표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하여 10월 25일(수)에는 오후 9시까지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한편, 태광그룹은 문화예술의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2009년 세화예술문화재단을 설립, 일주&선화 갤러리를 운영하며 국내외 작가 지원 및 전시를 개최하였다. 2017년 세화미술관으로 확장 개관하여, 광화문 흥국생명빌딩 1층에서 상설전시 및 3층 미술관에서 다양한 기획 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끝>

○ 전시정보

제목 : 세화미술관

주최 : 태광그룹 세화미술관 (www.sehwamuseum.org) / 후원 : 흥국생명

일정 : 2023.10.18.(수) ~ 2023.11.26.(일), 화~일요일 10:00~18:00 (월요일 휴관)

장소 : 세화미술관 제 1, 2 전시실(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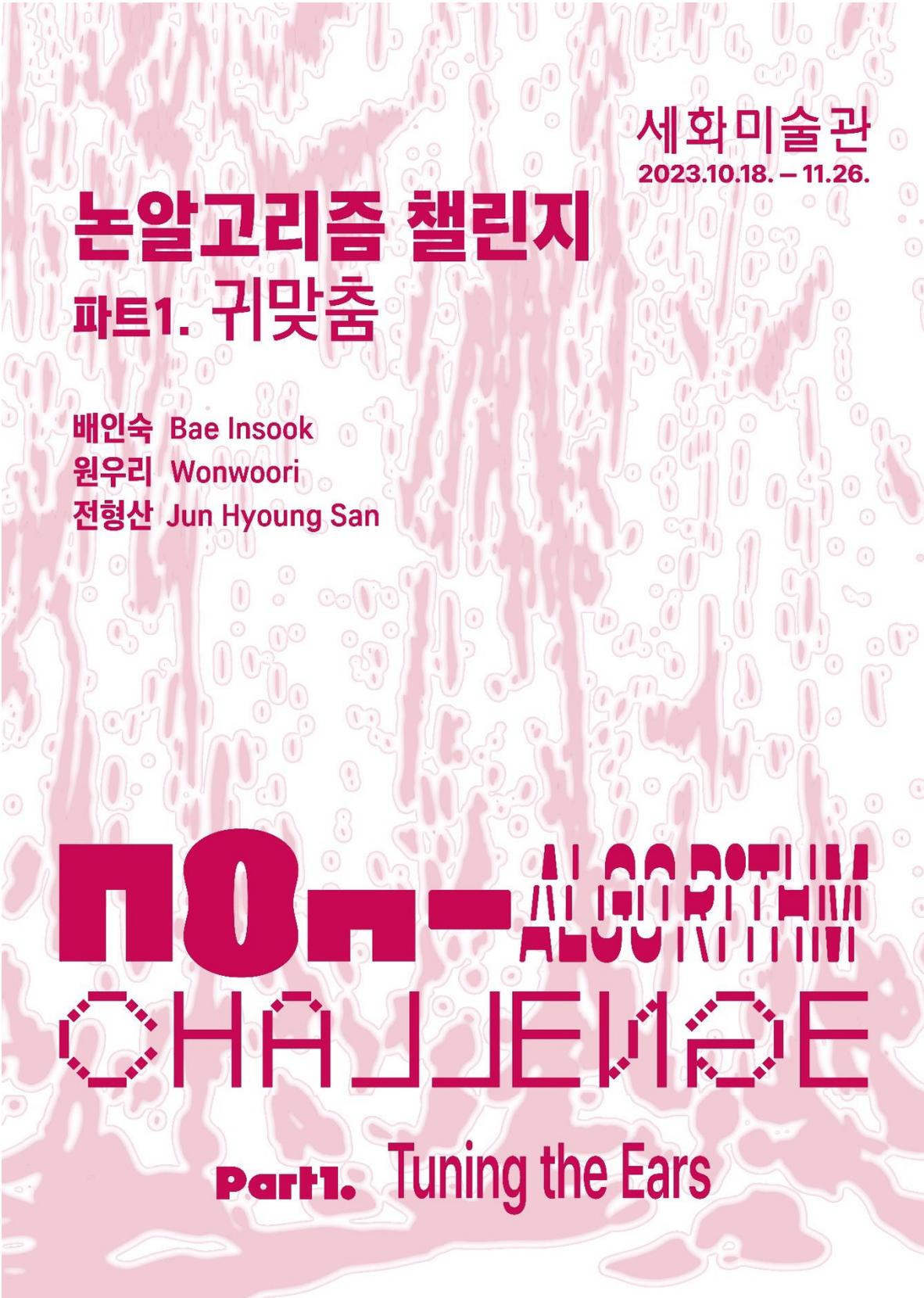
입장료 : 성인(3,000원), 청소년(2,000원) / 단체 20인 이상 할인가 적용

참여작가 : 배인숙, 원우리, 전형산

문의 : 02-2002-7744 / sma@sehwamuseum.org

*큐레이터 투어가 매주 목, 토, 일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된다.

- 붙임 1. 전시 포스터 1 부
2. 전시 기획글 1 부
3. 작가 소개 1 부
4. 전시 전경 1 부. 끝.



세화미술관
2023.10.18. - 11.26.

논알고리즘 챌린지

파트1. 귀맞춤

배인숙 Bae Insook
원우리 Wonwoori
전형산 Jun Hyoung San

NON-ALGORITHM
CHALLENGE
Part 1. Tuning the Ears

기획글

모든 것이 0과 1로 구성된 초디지털 사회에서 기술은 인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우리가 감각하고 사유하는 모든 과정에 입체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디지털로 매개되고 재구성되는 디지털 포스트 휴먼으로의 이행은 또 다른 불안을 낳기도 한다. 그러나 과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대두된 인공지능의 시대는 어쩌면 '인간' 같은 존재를 창조하고 발견하기를 원했던 인간 염원의 가장 구체적인 구현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과 같은 존재의 등장에 이르러서야 인간다운 것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에 직면하게 된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다움을 발견하기 위해 인간의 유연한 사고를 탐구하는 '논알고리즘 챌린지'는 첫 번째 전시에서 인간의 비정형적인 사고의 근간인 감각에 주목한다.

감각 기관을 통해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인간은 매 순간 수많은 외부 자극을 뉴런을 통해 뇌로 전달함으로써 의식한다. 감각은 외부 데이터를 처리하는 인간의 독특한 방식으로, 오감 중에서도 '청각'은 외부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을 가장 잘 '감각' 할 수 있는 과정이다. 소리는 공기의 진동으로, 발생하는 동시에 사라진다. 빠르게 사라지는 소리를 감각할 수 있는 것은 청각 뉴런의 계산 능력 덕분인데, 청각 뉴런은 1,000분의 1초 만에 소리를 계산함으로써 신속하게 외부 자극을 감각으로 변환한다. 따라서 듣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외부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이미 듣고 있으며, 듣는다는 것은 언제나 자극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사실 존재하는 모든 소리는 동시에 소음이기도 하다.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를 방해하는 다른 소리는 모두 소음으로 치부된다. 따라서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여러 소리 속에서 내가 원하는 신호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감각을 통해 외부 데이터를 전달받은 우리의 뇌는 자율성을 가지고 이를 지각한다. 예를 들어 음악은 의미도 정보도 담고 있지 않은 소리 조합에 불과하지만, 인간은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않는 음들에 상관을 만들어 내고 감동을 느낀다. 의미 없는 외부의 데이터를 감각을 통해 의식과 연결함으로써 개개인의 자율적 해석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입력된 데이터 값을 (Input) 명령어에 의해 실행하는(Output) 알고리즘의 인공지능에게 인간의 주체적인 처리 과정은 여전히 도달할 수 없는 다음 차원의 영역이다.

《귀맞춤》은 인간의 감각, 그중에서도 시각 중심주의에서 체감하기 어려웠던 인간의 청각을 자각하기 위한 실험의 장이다. 모든 정보가 영상매체로 전환되어 쏟아지는 지금, 눈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이 귀에 담긴다. 전시장에서는 청각을 증폭시킴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소리를 감각하는지에 주목한 작업들이 펼쳐진다. 이 작업들은 정해진 러닝타임을 갖지 않는다. 관객은 직접 내가 얼마큼 들을 수 있고, 들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관객 없이는 조율되지 않는 작업들이 놓인 이곳에서 각자의 귀를 맞추어 나의 시간을, 위치를, 존재를 감각하기를 바란다.

붙임 3	작가 소개(3명)
<p>배인숙 (b.1975)</p>	<p>배인숙은 명지대학교에서 청소년지도학과와 동국대학교에서 컴퓨터음악 석사를 전공하고, 네덜란드의 헤이그 왕립음악원에서 소놀로지 코스를 마쳤다. 작가는 기존의 상황, 시스템을 변경하여 다른 형식과 의미를 적절한 매체에 담는 작업을 해왔다. 과거에는 최신기술이었으나 지금은 사라진 기술들을 다시 소환하여 새로운 사물로 만들거나, 악기가 아닌 사물을 악기로 치환하는 방식에 관심을 가진다.</p> <p>《가능한 위치변경》(2018, 가변크기), 《밤의 접속》(2016, 스페이스 빔), 《Respect Audio》(2015, 17717), 《Mute Off》(2015, Gallery RAHAN) 4 회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뉴올드 플레이룸》(2023, 중랑아트센터), 《포킹룸 2023 아드레날린 프롬프트》(2023, 탈영역우정국), 《선셋+필드셋 입주작가 프리뷰전》(2022, 고양예술창작공간 해움), 《Unreal World》(2021, 임시공간) 외 유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p>
<p>원우리 (b.1987)</p>	<p>원우리는 경희대학교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테크놀로지과에서 컴퓨터음악을 공부했다. 작곡가로도 활동하는 작가는 예술에서 소외되기 쉬운 대상을 조망하며 음악과 테크놀로지로 인간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인공와우 사용자의 기계적 청감을 연구하며, 생리적-기계적 청감의 교류 속에서 음악의 본질은 무엇인지 탐구하고 있다.</p> <p>《해랑》(2023, 을지로 OF),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2023, 인천 파라다이스), 《랜덤 액세스 프로젝트 3.0》(2023, 백남준 아트센터), 《ZER01NE 2022》(2022, 현대 자동차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제로원), 《가려진 말들》(2021, 인사미술공간) 등의 단체전과 2019년 서울국제컴퓨터음악제 초청 연주를 시작으로 2020 위사 페스티벌(WeSA Festival) 아일랜드에서 개최된 ICMC 2022(International Computer Music Conference) 등 다수의 공연을 통해 작품을 선보였다.</p>
<p>전형산 (b.1984)</p>	<p>전형산은 추계예술대학교에서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에서 미디어아트를 전공하였다. '비음악적 소리'의 관심으로 사운드 노이즈의 잠재성에 관하여 연구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사운드 인스톨레이션 작업과 사운드 퍼포먼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작품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p> <p>《목소리의 극장》(성북예술창작터, 2021), 《잔향시간》(인사미술공간, 2018), 《뜻밖의 소리》(반출-살레, 2015), 《뉴노멀: 선형적 편린들》(더 미디엄, 2015) 4회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숫—폼》(페리지갤러리, 2023), 《투 히어;Two Here》(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2022), 《어느 날 갑자기》(고양레지던시, 2021), 《RAINBOW TOMORROW : #내일의 #무지개》(포스코미술관, 2021) 외 다수의 단체전과 박승순과 듀오로 《뉴로스케이프 릴레이 퍼포먼스》(2019, 백남준아트센터), 《잔향시간 Reverberation Time》(인사미술공간, 2018)에서 사운드 퍼포먼스에 참여하였다.</p>



원우리, <양자 맥놀이>, 2023, 사운드 설치; 스테인리스스틸, 사운드 익사이터, 가변설치



원우리, <음정 응답>, 2023, 사운드 설치; 컨트롤러, 다채널 스피커, 가변설치



전형산, <다크필드; 모노리스>, 2023, 사운드 설치; 스마트폰 6대, 모터, 컨트롤러, 간판 프레임, 조명, 검정색 스테인리스스틸, 스피커, PA 오디오 시스템, 기타 이펙터, 가변설치



전형산, <불신의 유예#3; 콘택트>, 2018, 사운드 설치; 모터, 스피커, 앰프, VLF 리시버, 루프안테나, 라이트센서, 사운드 모듈, 가변설치



배인숙, <심 프로젝트>, 2023, 사운드 설치; 챗 지피티와의 대화를 엮은 책자, 웹사이트, 가변설치



배인숙, <사운드 오브 시티>, 2023, 사운드 설치; 아두이노, 센서, 가변설치